

한국 경영학 연구동향과 미래 연구방향: KBR을 중심으로*

현 정 석**
고 창 열***
이 경 은****

한국경영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Korea Business Review(KBR)는 한국적 경영사례와 이론을 개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해 왔다. KBR은 1997년 경영교육연구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5년 5월까지 총 454편의 논문을 발간하였다. 2015년은 한국경영학회가 창립된 지 60년을 맞는 해이며, 한국 경영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미래 연구 방향을 조망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KBR이 그동안 발행해 온 총 19권 50호 454편의 논문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 경영학 연구의 미래연구방향을 조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 관점의 KBR 게재논문 분석 및 피인용횟수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계량서지학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교육분야의 논문은 투고가 줄어든 반면에 일반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홍보성 논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단일사례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계 논문 및 외국인 저자, 외국어로 작성된 게재논문 비율이 낮다. 넷째, 논문투고에서 발간까지의 기간이 길다. 피인용횟수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지에 게재된 정렬순서가 논문의 피인용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고문헌을 많이 인용할수록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동연구자의 수가 많고 적음이 논문의 인용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이론적 배경이 있는 연구가 그렇지 않은 연구보다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양적 연구가 포함된 연구일수록 인용이 많이 되는 논문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부제목 사용은 논문인용에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한국 경영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교육 분야 논문의 감소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단일사례보다 다중 사례를 다룬 연구를 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산업계 연구인력의 연구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대상, 연구자, 연구논문의 국제화가 요구된다. 넷째, 논문수정기간의 단축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논문지의 논문정렬순서를 논문접수순서가 아닌 논문의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꾸준한 연구 및 선도적 주제선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한국경영학회, Korea Business Review(KBR), 연구동향, 계량서지학, 피인용횟수

1. 서론

1956년 창립된 한국경영학회는 경영학과 이에 관련된 제 분야의 학제간 연구를 통하여 한국경영학

발전과 국가경제 및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한국경영학회 창립이후 다양한 경영학 관련 학회가 설립되었다. 또한, 1971년 한국경영학회의 학술지인 「경영학연구」가 창간된 이후 경영학계의 연구는 더욱 활

논문접수일: 2015. 10. 05. 1차 수정본 접수일: 2015. 12. 30. 게재확정일: 2016. 01. 03.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6036362)

**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jshyun@jejunu.ac.kr), 제1저자

*** 제주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kocy@jejunu.ac.kr), 교신저자

**** 제주대학교 경영정보학과 박사과정(lke0108@jejunu.ac.kr)

발하게 진행되었다. 특히 1990년대 초중반에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통한 실질적 교육과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경영사례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경영학 교육 및 연구와 실제 경영활동을 연결시키는 역할이 강조되었다. 한국경영학회는 이러한 역할수행을 위한 부설기관으로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을 1995년 설립하였다.

한국경영사례연구원은 경영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고 혁신하며, 학계 및 기업계에서 새로운 경영학 교육교재 및 방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1997년 「경영교육연구」를 창간하였다(장지인, 윤병섭, 2009). 「경영교육연구」는 2010년 8월 「KBR(Korea Business Review, 이하 KBR과 함)」로 명칭이 변경되어 한국기업의 경영사례뿐만 아니라 한국기업 경영 학술논문으로서 산학연계의 학술지로 재포지셔닝되었다(김용준, 2011). KBR은 1997년 5월 1일 「경영교육연구」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5년 5월 31일 19권 2호까지 통권 50호 총 454편이라는 많은 논문을 발간하여 경영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중요한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 동안 경영학 관련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살펴보고자 한 노력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KBR을 대상으로 그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의 연구기회를 제시하고자 한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창간 후 10년이 지나도록 KBR에 발표된 논문의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장지인과 윤병섭(2009)은 KBR의 발간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한 바 있다.

KBR은 1997년 창간이후 2002년 발행호까지 일반학술지로 구분되다가, 2003년 발행호부터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고, 2009년 발행호부터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한국경영학회 창립 60년을 맞아 한국 경영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한

KBR의 통합적인 개선방안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어떤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KBR에서 발간되는 논문의 피인용횟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우수한 논문수록 자주 인용될 것이기 때문에 논문의 피인용횟수가 중요하고, 피인용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술지의 방향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조은성, 김세나, 2007).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경영학회가 발간하는 KBR 총 19권 50호 454편의 기발간 논문에 대한 고찰을 통해 KBR이 한국 경영학 연구에 기여한 점을 분석하고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등 앞으로의 한국 경영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계량서지학(bibliometrics)의 다양한 속성에 해당하는 연구이론,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저자, 연구행태 등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여 KBR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미래연구기회를 제시하고자 한다(김영태 외 3인, 2015; 오홍철 외 2인, 2009; 윤태열 외 4인, 2012; 차석빈, 2012; 백기복 외 2인, 1998; 이명희, 김은주, 2011). 또한, 피인용횟수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KBR에 게재된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으며, 어떤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고자 한다(조은성, 김세나, 2007; 조은성, 송재도, 2013). 마지막으로 KBR 운영 등과 관련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KBR이 「경영학연구」 등 타 경영학분야 학회지와는 차별되는 중요한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본 연구의 결과로 예상되는 기여는 다음과 같다. 첫째, KBR이 발간한 연구동향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여 향후 경영학 분야의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KBR 운영과 관련하여 제시된 개선방안을 통해 KBR이 타 학회지와 차별되는 중요한 학술지로서의 역할 수행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를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계량서지학적 관점에서 게재논문을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피인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이론적 배경

과거의 연구동향 파악은 시대에 따른 연구흐름 파악 및 새로운 분야 탐색 및 개척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김민성의, 2015).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 관점에서의 분석 및 피인용여부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다. 먼저, 계량서지학이란 문헌을 대상으로 통계기법을 적용하여 문헌의 역사, 특징, 동향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손성진, 2014). Pritchard (1969)이 “도서 및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에 수학과 통계방법을 적용하는 학문(the application of mathematical and statistical methods to books and other media of communication)”으로 정의한 이후 계량서지학은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계량서지학을 이용한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문헌연구의 동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KBR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발간시기별 연구이론,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저자, 연구행태 등에 대한 내용분석과 생산성 분석을 수행하여 도출된 계량서지학적 정보를 이용하여 미래 연구의 기회를 탐색하고자 한다.

피인용여부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은 KBR에 게재된 논문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

으며, 어떤 논문이 많이 인용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용동기에 대한 초기연구에 해당하는 Brooks(1985)는 연구자들이 다른 연구자의 논문을 인용하는 7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 번째는 가장 최신의 논문을 참고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참고한 논문의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세 번째는 자기 논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위해, 네 번째는 자기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위해, 다섯 번째는 인용한 문헌의 주장을 지지하거나 입증하기 위하여, 여섯 번째는 연구와 관련된 문헌을 독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다른 연구자가 알고 있는 것을 자신도 알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인용동기에 대한 관점은 일반적으로 보편주의적 관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 제시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Judge et al., 2007; Stremersch et al., 2007; 조은성, 송재도, 2013). 인용이 현재 논문에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음을 인정하는 인용동기에 대한 관점이 보편주의적 관점이다. 이러한 보편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우수한 논문일수록 인용횟수가 증가한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시키기 위해 가장 권위있는 연구자를 인용한다는 관점이다. 마지막으로 제시방식에 의한 관점은 탐색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논문특성이 인용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이다. 제시방식에 의한 관점에 따르면 논문이 어떤 방식으로 제시되었는가가 인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마케팅 관련 학술지에 실린 국내논문들에 대한 피인용횟수 영향요인을 분석한 조은성과 송재도(2013)의 연구방법을 기초로 KBR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분석한다.

2.2 선행연구 및 기존연구와의 차별성

2.2.1 연구동향 분석 선행연구

계량지식학적 분석방법을 포함하여 경영학 관련분야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는 다양하다. 최근에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는 <표 1>과 같다. 경영학분야에서 먼저 장지인과 윤병섭(2009)은 「경영교육연구」의 창간호부터 2007년 8월호까지 215편을 대상으로 「경영교육연구」의 성과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김효근 외(2003)는 1991년-2001년까지 「경영학연구」에 실린 424편의 연구방법론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질적연구방법론의 관심을 통해 연구방법론의 균형적 선택을 주장하였다. 김인수(2000)은 경영학 관련 학술지 18개의 1971년부터 1999년까지의 4,031개의 논문을 참고하여 우리 기업의 경영문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영학이론의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회계학 분야에서는 비교적 최근 연구동향에 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김민성 외(2015)는 관리회계분야 사례논문 관련 6개 학술지 2002년부터 2014년 6월까지의 1,372개의 논문을 분석하여 관리회계 사례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제공하였다. 최원석 외(2015)는 한국회계학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회계학연구」 583편 및 「회계저널」 773편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여 회계학 연구분야의 주제와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손성진(2014)은 「회계학연구」, 「회계저널」, 「관리회계연구」의 관리회계분야 논문 351편(1977년부터 2013년까지)을 대상으로 한국 관리회계 학문분야의 계량지식학적 관점에서 연구내용과 생산성 분석을 통해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미래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마케팅 분야에서도 연구동향 분석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다. 강우성 외(2015)는 계량마케팅

분야에 대한 연구동향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정은(2015)은 유통연구분야별 연구주제와, 연구방법론,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창조와 여준상(2010)은 「마케팅연구」, 「소비자학연구」에 게재된 마케팅분야의 국내연구 내용을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마케팅 분야의 연구흐름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밖에 신동엽과 김영규(2015)는 인사조직연구, 경영학연구, 전략경영연구에 게재된 거시조직 및 전략경영 연구의 현황과 추세를 분석하였다. 현인규 외(2009)는 「유통정보학회지」에 게재된 186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김신과 천만봉(2012)는 기업경영연구에 게재된 594개 논문을 분석하여 각 경영분야별 연구성과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애랑과 조우정(2013)은 스포츠경영학의 한국과 미국 학술지를 비교분석하여 연구의 질적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동향 및 연구방향에 대한 다각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2.2 피인용 영향요인 분석 선행연구

피인용횟수의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는 학술지 내부의 의사결정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지만 자료분석의 한계로 인해 자주 다루어지지 못했다.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 한국 학술지인용색인(KCI)을 발표하면서 피인용횟수 관련 연구가 가능해졌다. 조은성과 송재도(2013)는 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마케팅연구」, 「마케팅관리연구」, 「소비자학연구」의 3개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포아송 회귀 분석(Poisson regression)을 사용하여 피인용횟수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분량이 많은 논문일수록 적게 인용되었고, 저자의 수가 많을수록

〈표 1〉 경영학 관련분야의 연구동향 분석 대표 선행연구

분야	논문	논문제목	분석대상 학술지	대상기간	편수	발간논문지
경영	장지인, 윤병섭 (2009)	「경영교육연구」 10년: 성과와 시사점	경영교육연구 〔現. KBR〕	1997-2007	215	경영교육연구 〔現. KBR〕
	김효근, 이현주, 문윤지 (2003)	한국 경영현상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재고- 질적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1991-2001	424	경영교육연구 〔現. KBR〕
	김인수(2000)	한국의 경영학연구: 이대로는 안 된다	경영학 관련 학술지 18개	1971-1999	4,031	경영학연구
회계	김민성, 정형록, 김미옥, 박진하 (2015)	한국 관리회계 사례논문의 연구동향	관리회계분야 사례논문 관련 6개 학술지	2002- 2014.06	1,372	관리회계연구
	최원석, 윤성만, 윤소라(2015)	한국 회계학 연구의 40년 회고와 전망	회계학연구 회계저널	1977-2013 1993-2013	583 773	회계저널
	손성진(2014)	한국 관리회계 학문분야의 연구동향과 미래 연구 방향: 계량서지학적 관점에서 연구내용과 생산성 분석	회계학연구, 회계저널, 관리회계연구	1977-2013	351	회계저널
마케팅	강우성, 정환, 김영찬(2015)	계량마케팅 연구에 대한 고찰: Review 2001-2014	마케팅연구, 경영학연구 등 마케팅 관련 학술지 10개	2001- 2014상반기	275	마케팅연구
	박정은(2015)	유통 연구에 관한 비판적 고찰과 향후 연구방향	유통관련 학술지 4개, 유통연구	2004-2013	117	마케팅연구
	유창조, 여준상 (2010)	마케팅분야의 국내연구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2000-2009)	마케팅연구, 소비자학연구	2000-2009	515	소비자학연구
유통 경영	현인규, 박정섭, 박소진(2009)	한국유통경영학회 연구동향 분석	유통정보학회지	1998-2009	186	유통 경영학회지
인사 조직	신동엽, 김영규(2015)	한국의 거시조직 및 전략경영 연구 현황: 한국형 거시조직 및 전략경영 이론의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	인사조직연구, 경영학연구, 전략경영연구	1980-2013	435	인사조직연구
기업 경영	김신, 천만봉 (2012)	한국 기업경영학의 연구동향	기업경영연구	1994-2012	593	기업경영연구
스포츠 경영학	김에량, 조우정 (2013)	스포츠경영학의 연구동향 비교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와 북미스포츠경영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 경영학회지, 북미스포츠 경영학회지	2004-2012	601	한국스포츠 산업·경영 학회지

인용이 자주 되었으며, 제1저자가 상위권대학에 근무할수록 많이 인용되었다. 또한, 많은 수의 주제를 포함할수록 피인용횟수가 증가하였고, 참고문헌이 많을수록 피인용횟수가 증가하였다.

2.2.3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다각도로 분석할 내용을 파악하고 KBR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분석을 수행할 것이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KBR이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2009년 이후의 게재논문을 포함한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미래연구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KBR게재논문에 대한 피인용횟수의 영향요인 분석을 수행하여 KBR학술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III. 계량서지학적 관점의 게재논문 분석

3.1 분석대상 및 분석내용

3.1.1 분석대상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1997년 5월 1일 「경영교육연구」 창간호부터 2015년 5월 31일 19권 2호까지 통권 50호 총 454편에 해당하는 KBR 게재논문이다. 분석을 위해 분석의 기초가 되는 연구분야 대분류를 경영교육, 사례연구, 일반연구, 서평, 연구방법론의 다섯 가지로 구분한다. 또한, 1997년 창간 이후 2002년 발행분까지 일반학술지로 구분된 시기의 게재논문 130편을 1기,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120편의 발행분을 2기,

등재학술지로 선정된 2009년 발행호부터 2015년 5월까지 발행분 204편을 3기로 구분한다. 참고로 KBR은 2008년 이전에는 대부분 1년에 두 번 발행하다가 2009년부터 1년에 세 번 발행하였고, 2011년부터는 1년에 네 번 발행하고 있다.

〈표 2〉 KBR발행 연혁

구분	1기 (일반)	2기 (등재후보)	3기 (등재)	합계	
연도	1997~ 2002	2003~ 2008	2009~ 2015.5	-	
권	1~6	6~12	12~19	-	
호	13	13	24	50	
연구 분야 대분류	경영교육	48	18	4	70
	사례연구	75	88	164	327
	일반연구	1	12	35	48
	서평	6	0	0	6
	연구방법론	0	2	1	3
총합계	130	120	204	454	

또한, 〈표 3〉의 경영학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의 연구분야를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례연구와 일반연구를 경영전략, 인사조직, 생산관리, 재무관리, 회계, 마케팅, 국제경영, MIS_e-biz, 기술경영의 9개 세부분야로 구분한다.

경영교육분야는 장지인과 윤병섭(2009)의 연구에서 교육평가, 교육품질, 교수방법, 교과과정, 학습모형, 수강방법, 수강태도, 원격교육, 대학경영, 현장연구, 모니터링의 11개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지인과 윤병섭(2009)의 경영교육분야 구분을 참고하여 교과과정, 교수법, 교육개선 및 혁신, 교육교재, 교육품질, 수강방법 및 태도 등 6가지 세부분야로 구분한다.

〈표 3〉 경영학 연구동향 분석 선행연구의 경영학 분야 구분

논문	경영학 분야 구분
장지인, 윤병섭 (2009)	재무관리, 회계학, 인사조직, 경영전략, 생산/계량, MIS/e-biz, 국제경영, 마케팅, 경영일반, 기술개발, 경영철학, 경영교육
김효근, 이현주, 문윤지 (2003)	생산/계량, 재무,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정책, 회계, 국제경영, 경영정보, 기타
김인수 (2000)	경영학일반, 생산/계량, 재무, 마케팅, 인사/조직, 전략/정책, 회계, 국제경영, 경영정보, 기타
김 신, 천만봉 (2012)	인사조직, 생산계량, 기술혁신, MIS, 마케팅, e-biz, 재무금융, 회계학, 국제경영, 경영사, 경영전략, 중소기업, 관광경영, 경영일반, 기타

3.1.2 분석내용

본 연구는 1)KBR의 발행과 구성, 2) 연구이론 분석, 3) 연구방법 분석, 4) 연구대상 분석, 5) 연구저자 분석, 6) 연구행태 분석, 7) 기타분석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각 분석대상별, 분석내용별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분석하여 경영학 연구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3.2 분석결과

3.2.1 KBR의 발행과 구성

KBR은 전체적으로 사례연구가 72%를 차지하고 있다. 1기에서는 경영교육이 37%의 구성비율을 차지하였으나 경영교육 게재편수가 점차 줄어들어 등재학술지 선정이후에는 경영교육 분야 논문이 불과 4편(2%)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사례연구와 일반연구의 비중이 증가했다. 사례연구의 높은 구성비중

은 KBR이 경영사례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호별 평균편수는 1기에 10편, 2기에 9.2편, 3기에 8.5편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표 4〉 시기별 연구분야별 편수 및 호당평균편수

시기	권/호	구분	총 편수	경영 교육	사례 연구	일반 연구	서평	연구 방법론
1기 (일반)	6권 13호	편수	130	48	75	1	6	0
		비율	100%	37%	58%	1%	5%	0%
		호별 평균 편수	10.0	3.7	5.8	0.1	0.5	-
2기 (등재 후보)	6권 13호	편수	120	18	88	12	0	2
		비율	100%	15%	73%	10%	0%	2%
		호별 평균 편수	9.2	1.4	6.8	0.9	-	0.2
3기 (등재)	7권 24호	편수	204	4	164	35	0	1
		비율	100%	2%	80%	17%	0%	0%
		호별 평균 편수	8.5	0.2	6.8	1.5	-	0.0
합계	19권 50호	편수	454	70	327	48	6	3
		비율	100%	15%	72%	11%	1%	1%
		호별 평균 편수	9.1	1.4	6.5	1.0	0.1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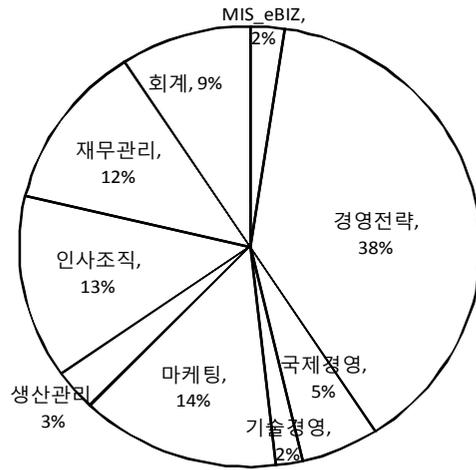
3.2.2 연구이론 분석

시기별 연구분야별 세부연구분야별 호당 평균게재 편수를 살펴보면 경영교육분야는 세부연구분야가 전반적으로 모두 감소했으며, 사례연구분야는 MIS_e 비즈니스 및 국제경영분야가 감소했다.

〈표 5〉 (세부) 연구분야별 호당평균편수 및 비율

연구분야 및 세부 연구분야	3기		1~3기 합계	
	편수	비율 (%)	편수	비율 (%)
경영교육	0.2	2	1.4	15
- 교과과정	0	0	0.6	7
- 교수법	0.1	1	0.2	2
- 교육개선 및 혁신	0.1	1	0.3	3
- 교육교재	0	0	0.3	3
- 교육품질	0	0	0.0	0
- 수강방법 및 태도	0	0	0.0	0
사례연구	6.8	80	6.5	72
- MIS_e비즈니스	0.2	2	0.3	3
- 경영전략	2.6	31	2.4	27
- 국제경영	0.4	4	0.7	8
- 기술경영	0.1	1	0.1	1
- 마케팅	1.0	11	0.9	9
- 생산관리	0.2	2	0.2	2
- 인사조직	0.9	11	0.8	9
- 재무관리	0.8	10	0.6	7
- 회계	0.6	7	0.5	6
일반연구	1.5	17	1.0	11
- MIS_e비즈니스	0.1	1	0.1	1
- 경영전략	0.3	3	0.2	2
- 마케팅	0.4	4	0.2	3
- 인사조직	0.4	5	0.3	3
- 재무관리	0.1	1	0.1	1
- 회계	0.2	2	0.1	1
서평	0	0	0.1	1
연구방법론	0.0	0	0.1	1
총합계	8.5	100	9.1	100

등재학술지 시기인 3기의 세부 연구분야별 구성 비율을 사례연구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경영전략이 38%, 마케팅이 14%를 차지하고 있어 과반을 형성한다.



〈그림 1〉 3기 사례연구의 세부 연구분야별 구성비율

또한 3기 20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는가를 분석한 결과 사례연구는 27%만이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사례연구이더라도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사례를 분석하는 것이 교육을 위한 사례연구를 지향하는 KBR의 역할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표 6〉 3기 게재논문의 이론적 배경 유무

연구분야	구분	이론적 배경 유무		총합계
		유	무	
경영교육	편수	0	4	4
	비율	0%	100%	100%
사례연구	편수	44	120	164
	비율	27%	73%	100%
일반연구	편수	30	5	35
	비율	86%	14%	100%
연구방법론	편수	0	1	1
	비율	0%	100%	100%
총합계	편수	74	130	204
	비율	36%	6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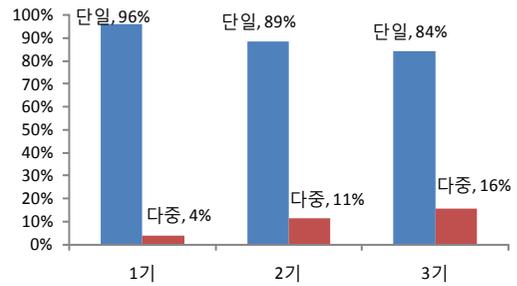
3.2.3 연구방법 분석

연구방법 분석에서는 사례연구 327편을 대상으로 양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는지,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사례연구의 특성상 질적연구가 322편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양적연구방법론과 질적연구방법론을 동시에 적용한 통합연구가 4편이었다.

〈표 7〉 사례연구의 연구방법 분석

구분	양적	질적	통합	합계
1기		75		75
2기		88		88
3기	1	159	4	164
- MIS_e비즈니스		4		4
- 경영전략		62	1	63
- 국제경영		9		9
- 기술경영		3		3
- 마케팅		22	1	23
- 생산관리	1	4		5
- 인사조직		20	2	22
- 재무관리		20		20
- 회계		15		15
총합계	1	322	4	327

또한, 사례연구를 단일사례를 이용하여 분석하는지 다중사례를 분석하여 공통의 시사점을 이끌어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례연구 중에서 다중사례가 차지하는 비율이 1기, 2기, 3기 각각 4%, 11%, 16%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단일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홍보성 논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단일사례를 지양하고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비교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다중사례연구가 바람직하다.



〈그림 2〉 사례연구의 단일사례 및 다중사례 비율

3.2.4 연구대상 분석

사례연구를 대상으로 연구대상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1기에서는 금융기관, 일반기업, 언론사, 지자체에 국한되었던 사례연구대상이 3기에서는 공공기관, 국고채, 병원, 전통시장, 학교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연구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다. KBR이 사례연구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연구대상 확장과 연구주제의 선도가 요구된다.

〈표 8〉 사례연구대상의 유형 구분

구분	1기	2기	3기	총합계
공공기관		4	8	12
국고채			1	1
금융	3	6	19	28
기업	70	77	128	275
민간/공공			1	1
병원		1	1	2
언론	1			1
전통시장			2	2
지자체	1		1	2
학교법인			1	1
협동조합			2	2
총합계	75	88	164	327

또한, 사례연구 327개를 대상으로 국내기업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 국외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및 국외 기업을 동시에 연구한 사례연구가 1기에는 없다가 2기에는 2편, 3기에는 3편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사례연구를 위해서는 국외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더욱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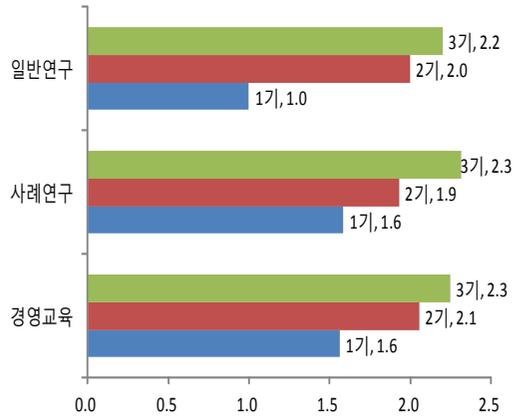
〈표 9〉 사례연구대상의 국내외 구분

구분		국내	국내 기업의 해외 현지화	국외	해외 기업의 국내 현지화	국내/국외	총합계
1기	편수	54	14	6	1	0	75
	비중	72%	19%	8%	1%	0%	100%
2기	편수	68	11	5	2	2	88
	비중	77%	13%	6%	2%	2%	100%
3기	편수	147	1	13	0	3	164
	비중	90%	1%	8%	0%	2%	100%
합계	편수	269	26	24	3	5	327
	비중	82%	8%	7%	1%	2%	100%

3.2.5 연구저자 분석

연구저자 분석에서는 먼저 연구분야별 편당 평균 저자수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1기에서 3기로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저자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연구의 경우 1기에서 1명이던 편당 저자수가 3기에는 2.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사례연구의 경우에도 1기에 1.6명이던 평균저자수가 3기에 2.3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단독저자의 비율이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1기: 65% → 3기: 20%). 단독저자 비율의 감소는 교수 연구업적평가에서 제1저자뿐만 아니라 교신저자에게도 가중치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공동저자 비율이 증가한 것일 수

있으며, 과거와 다르게 대학에서 박사과정생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여 지도교수와 박사과정생의 공동연구가 증가한 것에도 기인한다.



〈그림 3〉 연구분야별 시기별 편당 평균저자수

〈표 10〉 시기별 공동저자 구분

시기	공저구분	총합계	비율
1기	소계	130	100%
	단독저자	84	65%
	2인공저	30	23%
	3인공저이상	16	12%
2기	소계	120	100%
	단독저자	46	38%
	2인공저	44	37%
	3인공저이상	30	25%
3기	소계	204	100%
	단독저자	41	20%
	2인공저	90	44%
	3인공저이상	73	36%
총합계		454	-

실제로 2인 이상 공동저자의 경우 교신저자 설정비율이 2기만해도 2인공저, 3인공저이상에서 각각 14%, 17%였지만 3기에는 2인공저, 3인공저이상이 각각

76%, 75%를 차지하고 있다.

〈표 11〉 시기별 교신저자 설정 비율(단위: %)

구분	1기		2기		3기	
	유	무	유	무	유	무
단독저자	0	100	0	100	0	100
2인공저	0	100	14	86	76	24
3인이상 공저	0	100	17	83	75	25
총합계	0	100	9	91	60	40

연구자의 생산성을 살펴보면 총 659명의 저자가 454편에 해당하는 논문을 KBR에 게재했다. 이 중에서 6편이상의 논문을 게재한 저자는 총 5명이다. 78%에 해당하는 511명의 저자는 단 1편의 논문만을 KBR에 게재하였다.

〈표 12〉 연구자의 생산성

게재 논문수	저자수	비율	저자명
9	1	0%	우석대학교 윤동진
8	1	0%	중앙대학교 박찬희
7	2	0%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고영희 연세대학교 이호근
6	1	0%	서울대학교 이동기
5	7	1%	
4	8	1%	
3	33	5%	
2	95	15%	
1	511	78%	
총합계	659	100%	

소속기관별 저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BR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 중에서 15명 이상의 저자를 보유한 기관은 모두 12개 기관이다. 연세대학교가 79명으로 가장 많다.

〈표 13〉 소속기관별 저자수

기관명	소속기관 저자수
연세대학교	79
서울대학교	71
한양대학교	57
고려대학교	54
서강대학교	46
중앙대학교	43
성균관대학교	37
한국외국어대학교	35
서울과학종합대학원	29
KAIST	17
영남대학교	16
이화여자대학교	15

연구자 유형별 연구형태를 살펴보면 교수, 박사과정, 대학내 연구원등 대학내부의 연구자가 수행한 논문이 전체 454편의 논문중 393편으로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학연계 또는 대학외부의 구성원으로 논문을 작성한 사례는 13%에 불과하다. 또한 제 1저자의 소속기관이 대학인 경우가 전체의 92%에 해당한다. KBR이 지금보다 더 많은 현장지향적인 사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학공동연구 또는 산업계 연구인력의 연구 확대가 요구된다.

〈표 14〉 연구자 유형별 논문 구분

구분		대학 내부	산학 연계	대학 외부	총계
		1기	편수	116	
	비율	89%	5%	5%	100%
2기	편수	104	15	1	120
	비율	87%	13%	1%	100%
3기	편수	173	28	3	204
	비율	85%	14%	1%	100%
합계	편수	393	50	11	454
	비율	87%	11%	2%	100%

〈표 15〉 제1저자의 소속기관 구분

구분	대학	대학의 기관	합계	
1기	123	7	130	
2기	114	6	120	
3기	182	22	204	
합계	편수	419	35	454
	비율	92%	8%	100%

3.2.6 연구행태 분석

KBR에 게재된 논문중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전체의 30%에 해당한다.

〈표 16〉 연구비지원 여부

구분		연구비지원		합계
		없음	있음	
1기	편수	95	35	130
	비율	73%	27%	100%
2기	편수	80	40	120
	비율	67%	33%	100%
3기	편수	142	62	204
	비율	70%	30%	100%
합계	편수	317	137	454
	비율	70%	30%	100%

전체 454편의 논문 중에서 14편(3%)의 논문이 영어로 작성되었다. 또한, 외국대학소속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논문은 총 6편, 외국인 저자가 포함되어 있는 논문이 총 5편, 외국인이면서 외국대학 소속 저자가 포함된 논문이 총 7편이다.

〈표 17〉 논문 작성언어별 구분

구분	작성언어별			외국대학소속/외국인 저자			
	국문	영문	합계	외국 대학 소속	외국인	외국인/외국대학 소속	합계
1기	130	0	130			2	2
2기	119	1	120	2	1	1	4
3기	191	13	204	4	4	4	12
합계	440	14	454	6	5	7	18

3.2.7 기타 분석

먼저 등재학술지에 해당하는 3기(2009년~2015년)의 심사기간을 살펴보면 투고일에서 1차 수정본 접수일까지 평균은 119일로 약 4개월, 투고일에서 게재확정일까지는 182일로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8〉 투고일에서 게재확정일까지 소요기간(단위: 일)

구분	투고일에서 1차수정본접수일까지	투고일에서 게재확정일까지
2009	-	201
2010	-	266
2011	154	231
2012	88	114
2013	117	155
2014	135	180
2015	121	162
전체평균	119	182

3기의 편당 주제어 개수는 약 4.7개이다. 참고로 일반학술지였던 1기의 논문에서는 주제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편당 참고문헌수는 1기에서 3기로 지날수록 증가하였다. 1기에서 5편이었던 국내참고문헌수가 3기에서는 13편으로 증가했고, 외국참고문헌수도 8편에서 16편으로 증가했다.

〈표 19〉 편당 평균주제어수

구분	논문편수	주제어수	편당 평균 주제어수	편당 평균 참고문헌수		
				국내	외국	합계
1기	130	0	0	5	8	13
2기	120	426	3.6	8	13	21
3기	204	961	4.7	13	16	29

3.3 분석결과의 시사점

이상의 계량서지학적 관점의 게재논문 분석결과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교육분야의 논문은 투고가 줄어든 반면에 일반논문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학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례연구의 높은 비중을 유지하여 KBR이 경영사례의 개발과 보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KBR이 경영교육, 경영실무 등 경영학의 실용적인 연구를 다루는 가장 권위있는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는 경영교육 및 경영실무와 밀착된 실용적인 논문의 게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둘째, 더욱 다양한 연구대상 확장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공공기관, 국고채, 병원, 전통시장, 학교법인, 협동조합 등으로 연구대상을 넓혀나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화예술경영, 스포츠경영 등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분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KBR이 사례연구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글로벌 시대에 적합하며 현장지향적인 사례연구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외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의 환경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더욱 확장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산학공동연구 또는 산업계 연구인력의 연구 확대가 요구된다. 나아가 외국인 저자 및 외국어로 작성된 게재논문 비율을 늘릴 필요가 있다. 넷째, 논문투고에서 발간까지의 기간 단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KBR이 등재학술지에 해당하는 기간의 심사기간은 투고일에서 1차수정본 접수일까지 약 4개월, 투고일에서 게재확정일까지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논문심사기간과 수정기간 관련하여 “KBR논문 및 사례심사과정”에서는 심사기간, 수정기간을 각각 28일(재심 14일), 6개월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경영학회에서 발행하는 「경영학연구」도 심사기간 21일(2차심사기간 14일), 수정본 제출기간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KBR

의 심사기간 및 수정기간은 단축될 필요가 있다. 인용지수 상위 학술지들의 경우 주로 논문제출 마감일과 발간일 사이의 기간을 2~3개월로 규정하고 이 기간에 심사 및 수정을 마무리하므로 KBR의 논문 수정기간 6개월은 지나치게 길다.

〈표 20〉 국내외통합영향력 지수(IF) 상위학술지 (2015.7.8. 기준)의 심사의견 및 수정본 제출기간

학술지명	IF 순위	심사의견 제출 기간	수정본 제출 기간	논문제출 마감일 → 발간일
연론정보연구	1	x	x	2개월
관광연구	2	3개월	6개월	x
한국비교정부학보	3	x	x	x
교육심리연구	4	4주	x	
회계학연구	5	4주	6개월	
한국방송학보	6	x	x	2개월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7			3개월
관광경영연구	8	2주	14일	
아시아마케팅저널	9	x	x	x
호텔경영학연구	10	x	6개월	x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1	x	x	1.5개월
부동산학보	12	30일	60일	
Tourism Research	13	x	x	x
한국알코올과학회지	14	15일	15일	
노인복지연구	15	x	x	3개월
한국자치행정학보	16	x	x	1.5개월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7	2주	7일	
시민교육연구	18	x	x	2개월
청소년학연구	19	x	x	2개월10일
호텔관광연구	20	x	x	x
형사정책연구	21	x	x	1개월
한국가족복지학	22	x	x	3개월
한국아동복지학	23	x	x	3개월
한국노년학	24	x	x	3개월
청소년복지연구	25	x	x	2개월
관광연구논총	26	x	x	1개월20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27	x	x	2개월 25일 (재심사가능), 1개월 25일 (재심사불가)
경영학연구	28	21일 (2차_14일)	3개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			
교육과정연구	30	x	x	1개월25일

IV. 피인용 영향 요인 분석

4.1 표본 선정

본 연구의 분석은 KBR이 발간한 통권 50호 총 454편의 게재논문 중에서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에 피인용횟수가 1회이상 존재하는 논문이 속해있는 가장 최근 발간호인 2013년 5월호(제17권 제2호)까지의 논문 380편을 대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III. 계량서지학적 관점의 게재논문 분석”의 분석대상 454편에서 2013년 8월호(제17권 제3호)부터 2015년 5월호(제19권 제2호)까지 발간된 74편의 논문이 제외된 380편을 대상으로 피인용 영향요인 분석을 실시한다.

〈표 21〉 피인용영향 요인 분석 대상

연	월	권	호	피인용 횟수	논문수	연	월	권	호	피인용 횟수	논문수
1997	5	1	1	5	8	2009	2	12	3	35	8
	11	1	2	14	13		8	13	1	18	8
1998	5	2	1	15	11		11	13	2	19	7
	11	2	2/3	36	24	2010	2	13	3	11	8
1999	5	3	1	10	9		8	14	1	29	9
	11	3	2/3	1	20		11	14	2	17	7
2000	8	4	1	17	14	2011	2	14	3	35	11
2001	4	4	2	1	7		5	15	1	3	6
	9	5	1	9	8		8	15	2	11	5
2002	2	5	2	20	9		11	15	3	7	6
	8	6	1	4	7	2012	2	16	1	25	6
2003	2	6	2	58	8		5	16	2	8	11
	8	7	1	34	8		8	16	3	4	5
2004	2	7	2	20	8		11	16	4	7	9
	8	8	1	13	11	2013	2	17	1	13	10
2005	2	8	2	44	9		5	17	2	4	14
	8	9	1	37	11		8	17	3	0	10
2006	2	9	2	47	13		11	17	4	0	8
	8	10	1	64	12	2014	2	18	1	0	7
2007	2	10	2	36	10		5	18	2	0	8
	8	11	1	13	7		8	18	3	0	10
2008	2	11	2	24	9		11	18	4	0	13
	8	12	1	35	8	2015	2	19	1	0	11
	11	12	2	17	6		5	19	2	0	7
						합계				820	454

4.2 연구모형 설정 및 변수설정

4.2.1 연구모형 설정

KBR 게재논문의 피인용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포아송 회귀분석(Poisson regression)을 사용한다.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피인용횟수(N_citation)는 0과 자연수만을 값으로 하고 0의 비율이 높아 원점으로 편향된 분포이다. 이 경우 일반적인 회귀분석모형 보다는 포아송 회귀분석이 분석모형으로 적합하다(조은성과 송재도, 2013).

4.2.2 변수설정

독립변수는 피인용횟수에 영향을 미치는 관심변수로서 “2.1 이론적 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보편주의적 관점변수,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변수, 제시 방식에 해당하는 변수에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에 해당하는 변수를 포함한다.

먼저 보편주의적 관점은 우수한 논문일수록 자주 인용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논문의 우수성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우므로 Judge et al.(2007), Stremersch et al.(2007) 및 조은성과 송재도(2013) 등의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해당하는 요인인 이론적 배경유무(D_theory), 연구방법(D_method), 가설유무(D_H), 학술지 동일호에서 논문순서(pub_order), 논문의 분량(N_page)을 보편주의적 관점변수로 포함한다. 이론적 배경유무(D_theory)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며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면 1, 아니면 0이다. 연구방법(D_method)은 양적연구방법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가설유무(D_H)는 가설을 제시하였는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로 가설을 제시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가진다. 학술지 동일호에서

논문순서(pub_order)와 논문의 분량(N_page)은 논문순서와 페이지 지면을 관리하는 해외의 경우 그에 합당한 학술적 기여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Judge et al. 2007)을 고려할 때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함이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에서는 논문저자가 가장 중요한 인용의 동기가 되므로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변수는 모두 저자와 관련된 변수로서 제1저자의 수도권 대학 소속여부(D_metro), 저자의 수(N_author)를 이용하였다. 제1저자의 수도권 대학 소속여부(D_metro)는 제1저자의 소속기관이 수도권지역이면 1, 아니면 0을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그리고 저자의 수(N_author)가 늘어날수록 연구결과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를 손쉽게 알릴 수 있다.

제시방식 관련 변수는 논문이 제시되고 있는 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목의 길이(len_name), 부제목사용여부(D_subname), 주제어 수(N_keyword)를 이용하였다. 부제목사용여부(D_subname)는 부제목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의미하는 더미변수이다. 부제목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을 나타낸다. 주제어 수(N_keyword)가 많을수록 쉽게 발견될 것이므로 인용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 변수로는 국내참고문헌수(N_Domeref), 외국참고문헌수(N_Forref)를 이용하였다. 참고문헌의 양은 연구내용, 연구방법과 전반적인 연구수준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인용횟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통제변수는 시간의 영향을 고려하였다. 논문이 발표된 이후 경과된 시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고려하기 위해 조은성과 송재도(2013)의 연구에서 사용한 (분기+분기²)의 이차항 모형을 준용하였다. 다만 선행연구의 연구대상 학술지는 모두 분기별로 발간되었으나, KBR은 2011년 이전에는 분기별로 발간되지

않아 (발간호수+발간호수²)의 이차항 모형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KBR은 일반학술지(1기), 등재후보학술지(2기), 등재학술지(3기)의 단계를 거쳐 존재해 왔다. 학술지의 지위를 나타내는 시기(Period)가 피인용 횟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이상을 모두 반영한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N_citation = D_theory + D_method + D_H + pub_order + N_page + D_metro + N_author + len_name + D_subname + N_keyword + N_Domeref + N_Forref + issue + issue^2 + Period$$

여기서

N_citation: 피인용횟수

D_theory: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면 1, 아니면 0

D_method: 양적연구방법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변수

D_H: 가설을 제시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pub_order: 학술지 동일호에서 논문순서

N_page: 논문의 분량(페이지)

D_metro: 제1저자의 소속기관이 수도권지역이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N_author: 저자의 수

len_name: 제목의 길이

D_subname: 부제목이 존재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

N_keyword: 주제어 갯수

N_Domeref: 국내참고문헌 갯수

N_Forref: 외국참고문헌 갯수

issue + issue²: 발간호수 + 발간호수²

Period: 일반학술지 시기는 1, 등재후보학술지시기는 2, 등재학술지 시기는 3인 더미변수

4.3 분석결과

4.3.1 기술통계량

피인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위한 2013년 5월호(제17권 제2호)까지 발간된 최종분석표본 380편의 기술통계량은 다음과 같다.

〈표 22〉 기술통계량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N_citation	2.16	3.94	0	35
pub_order	5.33	3.10	1	14
N_page	23.60	7.40	3	65
N_author	1.92	1.00	1	8
len_name	32.33	15.93	7	122
N_keyword	2.73	2.54	0	9
N_Domeref	8.47	8.10	0	49
N_Forref	11.79	17.31	0	124
issue	20.48	12.39	1	42

〈변수설명〉

N_citation: 피인용횟수

pub_order: 학술지 동일호에서 논문순서

N_page: 논문의 분량(페이지)

N_author: 저자의 수

len_name: 제목의 길이

N_keyword: 주제어 갯수

N_Domeref: 국내참고문헌 갯수

N_Forref: 외국참고문헌 갯수

issue: 발간호수

종속변수인 피인용횟수(N_citation)의 평균은 2.16회, 최대값은 35회이다. 학술지 동일호에서 논문(pub_order)은 최대 14편까지 실렸으며, 논문페이지(N_page)는 최대 65페이지이다. 저자수(N_author)의 평균은 1.92명이며 최대값은 8명이다. 제목의 길이(len_name)는 영문제목으로 인해 최대 122자로 나타났으며, 주제어 개수(N_keyword)는 평균 2.73개로 나타났다. 국내참고문헌수와 외국참고문

현수의 평균은 각각 8.47개, 11.79개이다. 마지막으로 발간호수(issue)는 1부터 42의 값을 가진다.

4.3.2 다중공선성 확인

설명변수들 간에 완전한 선형관계가 없어야 선형 회귀모형 계수들의 추정이 가능하다. 다중공선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OLS모형에서 제시하는 각 변수별 분산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값을 분석한 결과 VIF값이 10을 넘는 변수는 연속된 발간시기와 관련이 있는 발간호수(issue)와 발간호수의 제곱(issue²), 그리고 시기(Period) 변수였다. 시간의 비선형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제곱항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발간호수의 제곱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Stremersch et al., 2007; 조은성과 송재도 2013).

〈표 23〉 분산팽창계수 측정 결과

변수	분산팽창계수	1/분산팽창계수
issue	36.54	0.03
issue ²	19.51	0.05
Period	10.43	0.10
N_keyword	2.81	0.36
D_H	1.45	0.69
D_theory	1.39	0.72
N_Forref	1.33	0.75
N_page	1.33	0.75
len_name	1.26	0.79
N_Domeref	1.21	0.83
D_method	1.19	0.84
N_author	1.15	0.87
D_subname	1.12	0.89
pub_order	1.07	0.94
D_metro	1.03	0.97
MeanVIF	5.52	

4.3.3 분석결과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대부분의 관심변수와 통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가졌다. 먼저 보편 주의적 관점변수인 이론적 배경유무(D_theory), 연구방법(D_method), 가설유무(D_H), 학술지 동일호에서 논문순서(pub_order), 논문의 분량(N_page) 중에서는 학술지 동일호에서 논문순서(pub_order)만이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해외의 경우 동일호에서의 논문발간순서는 논문의 가치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Judge et al., 2007). 하지만 KBR의 경우 논문 접수 순서대로 학술지 동일호에서 논문순서(pub_order)를 정해왔음을 감안하면 논문순서(pub_order)가 피인용횟수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이 가능하다.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변수인 제1저자의 수도권 대학 소속여부(D_metro), 저자의 수(N_author)에서는 저자의 수(N_author)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저자의 수가 많다고 해서 연구의 질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시방식 관련 변수인 제목의 길이(len_name), 부제목사용여부(D_subname)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부제목사용여부(D_subname)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매우 강한 음의 값을 나타내어 부제목의 사용이 논문의 독자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리고 국내참고문헌수(N_Domeref)와 외국참고문헌수(N_Forref)는 모두 피인용횟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4 분석결과의 시사점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표 24〉 피인용횟수 영향요인분석을 위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

N_citation	Coef.	Std.Err.	z	P> z	[95% Conf. Interval]	
D_theory	0.38***	0.09	4.18	0.0000	0.20	0.56
D_method	1.05***	0.18	5.92	0.0000	0.70	1.40
D_H	0.43***	0.12	3.58	0.0000	0.19	0.66
pub_order	-0.02	0.01	-1.41	0.1590	-0.04	0.01
N_page	0.01**	0.01	2.18	0.0290	0.00	0.02
D_metro	0.19**	0.08	2.33	0.0200	0.03	0.35
N_author	-0.06	0.04	-1.57	0.1170	-0.14	0.02
len_name	0.01**	0.00	2.29	0.0220	0.00	0.01
D_subname	-0.36***	0.10	-3.61	0.0000	-0.55	-0.16
N_keyword	0.02	0.02	1.13	0.2590	-0.02	0.06
N_Domeref	0.02***	0.00	3.73	0.0000	0.01	0.03
N_Forref	0.01***	0.00	5.30	0.0000	0.01	0.01
issue	0.00	0.03	0.17	0.8670	-0.05	0.05
issue^2	-0.00***	0.00	-3.17	0.0020	-0.00	-0.00
Period2	1.43***	0.21	6.84	0.0000	1.02	1.84
Period3	1.57***	0.29	5.36	0.0000	0.99	2.14
_cons	-0.47**	0.23	-2.04	0.0420	-0.92	-0.02

*** p < 0.01, ** p < 0.05, * p < 0.10.

도출하였다. 첫째, 논문작성시 이론적 배경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이론적 배경을 통해 논문의 노출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이론적 배경을 충실하게 제시할 경우 좋은 논문으로 인식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제목의 사용을 지양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제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부제목을 붙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조은성과 송채도, 2013). 셋째, 참고문헌을 많이 인용한다. 참고문헌이 많은 논문은 논문의 질적 수준이 높은 논문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탐색과정에서 노출 가능성이 참고문헌이 적은 논문보다 높아지기 때문이다.

V. 결론

5.1 연구결과의 요약

한국경영학회의 창립 60년을 기념하여 한국경영학회가 발간하는 KBR에 게재된 454편의 기발간 논문에 대한 고찰은 KBR이 한국 경영학 연구에 기여한 점을 분석하고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의 다양한 속성에 해당하는 연구이론, 연구방법, 연구대상, 연구저자, 연구행태에 대한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피인용횟수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많이 인용되는 논문의 특성을 제시하였다.

계량서지학적 관점의 게재논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교육분야의 논문은 투고가 줄어든 반면에 일반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홍보성 논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단일사례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산학연계 논문 및 외국인 저자, 외국어로 작성된 게재논문 비율이 낮다. 넷째, 논문투고에서 발간까지의 기간이 길다.

피인용횟수의 영향요인에 대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논문작성시 이론적 배경을 포함하는 논문, 양적연구논문, 가설을 설정한 논문, 페이지가 많은 논문, 제1저자의 소속기관이 수도권 지역인 논문, 제목의 길이가 긴 논문, 참고문헌이 많은 논문의 피인용횟수가 많다. 둘째, 부제목을 사용하는 논문의 피인용횟수가 적다.

5.2 도약을 위한 개선방안

KBR의 통합적인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 경영학 연구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교육분야 논문이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한 학회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신경영교육방식 및 경영분야 교육의 혁신 등의 주제를 포함하는 경영교육 관련 연구는 KBR학술지의 발간목적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학술지 차원의 장려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단일사례를 대상으로 한 홍보성 논문이 아닌 다중사례를 통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한 기업의 경영사례를 요약하여 서술하는 형태의 논문은 지양하고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례를 종합·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는 사례연구논문이 바람직하다.

셋째,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논문이 양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가야 한다. KBR의 사례 연구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육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논문 시상 및 지속적 관리 등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질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경영학 분야의 실용성과 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KBR이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현장지향적인 사례논문과 창의적이고 유용한 새로운 경영교육방식의 확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학연 공동연구 또는 산업계 연구인력의 연구 확대가 요구된다. 그리고 한국의 우수사례를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연구자 및 연구논문의 국제화가 필요하다.

넷째, 논문접수에서 게재확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 경영학의 학문특성상 연구의 시의적절성이 중요하기에 논문의 출간이 좀 더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논문지에 게재되는 정렬순서를 논문접수 순서가 아닌 논문의 수준으로 바꿀 것을 고려해야 한다. 피인용횟수의 영향요인 분석결과 논문지에 게재된 정렬순서가 논문의 수준보다는 논문접수순서의 기준으로 정렬되어 논문인용횟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편집위원회에서 게재될 논문의 수준과 학문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우수한 논문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

여섯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적 이슈를 선도해나가는 연구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 과거 동반성장, 초과이익공유제, 통일시대의 기업경영 등 논란이 되는 이슈를 경영학적 관점에서 조명하는 연구가 한국경영학회의 KBR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해 경영학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조명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더욱 다양한 연구대상 확장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경영, 스포츠경영 등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분야로 연구대상을 확장하여 KBR이 사례연구를 대표하는 학술지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계량서지학적인 측면에서 그 특징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피인용횟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을 수행하였으나 학술생산성에 대한 빈도분포를 나타내는 Lotka법칙 및 특정주제분야에의 분산법칙을 그래프적으로 계량분석하는 Brookes 분석법 등은 수행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가 새로운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미래 연구기회를 제시하여, KBR이 「경영학연구」등 타 경영학분야 학회지와는 차별되는 중요한 학술지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우성, 정환, 김영찬(2015), “계량마케팅 연구에 대한 고찰: Review 2001-2014,” **마케팅연구**, 30(1), 105-144.
- 김민성, 정형록, 김미옥, 박진하(2015), “한국 관리회계 사례논문의 연구동향,” **관리회계연구**, 15(1), 71-112.
- 김신, 천만봉(2012), “한국 기업경영학의 연구동향,” **기업경영연구**, 19(5), 17-41.
- 김애랑, 조우정(2013), “스포츠경영학의 연구동향 비교분석: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와 북미스포츠경영학회지를 중심으로,”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8(6), 17-28.
- 김영태, 부상돈, 노희소, 장영준(2015), “새물리 2014년 Annual Report,” **물리학과 첨단기술**, 1-2월호, 37-40.
- 김용준(2011), “KBR 편집위원장직을 마치며,” **KBR**, 14(3).
- 김인수(2000), “한국의 경영학연구: 이대로는 안 된다,” **경영학연구**, 29(3), 293-314.
- 김효근, 이현주, 문윤지(2003), “한국 경영현상 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의 재고-질적연구방법론을 중심으로,” **KBR**, 6(2), 47-64.
- 박정은(2015), “유통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향후 연구 방향,” **마케팅연구**, 30(1), 1-29.
- 백기복, 신제구, 차동욱(1998), “한국 경영학계의 리더십 연구 30년: 문헌 검증 및 비판,” **경영학연구**, 27(1), 113-156.
- 손성진(2014), “한국 관리회계 학문분야의 연구동향과 미래 연구 방향: 계량서지학적 관점에서 연구내용과 생산성 분석,” **회계저널**, 23(6), 347-393.
- 오홍철, 여호근, 이해영(2009), “국내 등재학술지 연구논문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 관광학 분야를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21(1), 345-362.
- 유창조, 여준상(2010), “마케팅분야의 국내연구에 대한 내용분석: 연구대상 및 연구 방법론을 중심으로 (2000-2009),” **소비자학연구**, 21(2), 321-340.
- 윤태열, 한문섭, 공기정, 홍성욱, 송규정(2012), “물리학과 첨단기술이 걸어온 길,” **물리학과 첨단기술**, 9월호, 1-8.
- 이명희, 김은주(2011), “학술지 내용분석법에 의한 교육학 연구동향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2(2), 81-100.
- 장지인, 윤병섭(2009), “「경영교육연구」 10년: 성과와 시사점,” **KBR**, 13(1), 167-190.
- 정세영, 박지용, 양찬호, 임은주(2015), “Current Applied Physics,” **물리학과 첨단기술**, 1-2월호, 45-47.
- 조은성, 김세나(2007), “광고연구에 발표된 논문들의 인용 및 저자 분석,” **광고연구**, 74, 215-248.
- 조은성, 송재도(2013), “어떤 국내 논문이 더 많이 인용되는가?,” **마케팅연구**, 28(4), 33-56.
- 차석빈(2012), “관광분야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21(6), 215-229.
- 최원석, 윤성만, 윤소라(2015), “한국 회계학 연구의 40년 회고와 전망,” **회계저널**, 24(1), 305-350.
- 현인규, 박정섭, 박소진(2009), “한국유통경영학회 연구동향 분석,” **유통경영학회지**, 12(5), 25-44.
- Brooks, Terrence A.(1985), “Private Acts and Public Objects: An Investigation of Citer Motiva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36(4), 223-229.
- Judge, Timothy A., Daniel M. Cable, Amy E. Colbert and Sara L. Rynes(2007), “What Causes a Management Article to be Cited-

Article, Author, or Journal?,"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0(3), 491-506.

Pritchard, A.(1969), "Statistical Bibliography or Bibliometrics?," *Journal of Documentation*, 25(4), 348-349.

Stremersch, Stefan, Isabel Verniers and Peter C. Verhoef(2007), "The Quest for Citations: Drivers of Article Impact," *Journal of Marketing*, 71, 171-193.

The Retrospect and Prospect on Korean Business Administration Literatures: Focused on KBR*

Jung Suk Hyun** · Chang Youl Ko*** · Kyong Eun Lee****

Abstract

Korea Business Review(KBR) of KASBA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developing business administration case studies and theories. KBR published the first issue of Management Education Research in 1997, and then it has published 454 papers so far (2015 May). In 2015, KASBA meet the 60th anniversary of the establishment. In order for the future challenges of Korean business administration research, it is time to take view of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19 volumes, the 50 numbers, and the 454 papers of KBR. The research results of the bibliometric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studies on management education sector are decreasing. Second, most studies are single-case studies that could be misunderstood as a promotional research. Third, university-industry linkage papers, foreign authors' papers, and papers written in a foreign language have a small percentage. Fourth, the term between shooting and publishing is too long. Next the research results about the impact factor of the cit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ublished order in an issue did not affect the citation index. Second, as a paper referred references more, the citation index of the paper became bigger. Third, the number of authors of a research did not affect the citation index of the paper. Fourth, the research which had the research background, was referred more than others. Fifth, as the research contained quantitative study, it was referred more. Sixth, the use of the sub-title of a paper had a negative effect on citations. The management methods for enhancing KBR are as follows. Firstly, treatment needs to increase studies on the management education. Secondly, multiple cases are needed to be encouraged more than single case. Thirdl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2015S1A5B6036362)

**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Jeju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Ph.D. student, Jeju National University

it needs to widen the industry-academy co-work. Also, internationalization of research papers is required. Fourthly, revision time should be reduced. Fifthly, it is needed to sort papers not by the received order but by the quality order of papers. Sixthly, the proposal of leading topics about social issues is necessary.

Key Words: KASBA(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Business Review(KBR), Research trends, Bibliometrics, Citations received